



보도자료

보도일시	2019. 8. 29.(목) 임시국무회의(09:00 예정) 이후 보도 가능		
배포일시	2019. 8. 29.(목)	대변인실	044-203-6581
담당부서	예산담당관실	담당과장	이영찬(044-203-6033)
		담당자	사무관 김나현(044-203-6034)

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.

교육부 2020년도 예산안 77조 2,466억원 편성 고교무상교육, 직업계고 지원 및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중점

-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2019년 본예산 74조 9,163억원 대비 2조 3,303억원(3.1%) 증가한 77조 2,466억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.
 - 2020년도 예산안 77조 2,466억원은 ①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교육 투자 확대, ② 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, ③ 고등교육 재정확충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, ④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공간혁신, ⑤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.
- 부문별로 살펴보면,
 - 유아 및 초·중등교육 부문은 '19년 본예산 59조 3,832억원 대비 9,126억원(1.5%) 증가한 60조 2,958억원을 편성하였다.
 - 유아교육비·보육료지원(3조 7,846억원), 고교무상교육(6,594억원) 등 공교육 투자를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 - 고등교육 부문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한 대학 재정의 어려움 해소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'19년 본예산 10조 806억원 대비 7,251억원 (7.2%) 증가한 10조 8,057억원을 편성하였으며,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대비 증가율(7.2%)도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다.

- 대학이 미래사회·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 역량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였고,

※ 대학혁신지원사업 : ('19.) 5,688 → ('20.안) 8,035억원 (+2,347억원)

- BK21 플러스사업(2,967→3,839억원*) 및 인문사회기초연구(1,617→1,851억원), 이공학 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(2,177→3,374억원) 등 혁신성장을 이끌 미래 핵심인재와 학문후속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였다.

* BK21 플러스사업(~'20.8.) 잔여사업비 및 BK21 후속사업('20.9.~), 글로벌박사양성사업 포함 수치

- 평생·직업교육 부문은 '19년 7,435억원 대비 1,907억원(25.6%) 증가한 9,342억원으로, 전문대학혁신지원(2,908→3,908억원)·고졸취업 활성화 지원(780→1,351억원)에 중점을 두고 '19년에 이어 2년 연속 25% 이상 대폭 확대되었다.

※ 고졸취업활성화 지원사업 : 중앙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(18억원), 기업현장교육지원(205억원),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(1,107억원),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개발(21억원) 등 4개 사업

- 사회복지 분야 예산안은 '19년 대비 4,966억원 증액된 5조 777억원을 편성하였다.

<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(정부안) 개요 >

(단위 : 억원, %)

구분	'19년		'20년 정부안 (B)	증감(B-A)	
	본예산 (A)	추경		금액	증감률
■ 총지출	749,163	750,050	772,466	23,303	3.1
(교부금, 유아교육특별회계 제외)	158,522	159,408	179,653	21,131	13.3
○ 예산	702,360	703,247	720,078	17,718	2.5
○ 기금	46,803	46,803	52,388	5,585	11.9
【교육분야】	703,353	704,239	721,688	18,335	2.6
· 유아및초·중등교육	593,832	594,014	602,958	9,126	1.5
(지방교육재정교부금)	552,488	552,488	554,967	2,479	0.4
(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)	38,153	38,153	37,846	△307	△0.8
· 고등교육	100,806	101,510	108,057	7,251	7.2
· 평생·직업교육	7,435	7,435	9,342	1,907	25.6
· 교육일반	1,280	1,280	1,332	52	4.1
【사회복지분야】	45,811	45,811	50,777	4,966	10.8
· 기초생활보장(교육급여)	1,317	1,317	1,016	△301	△22.9
· 공적연금(사학연금기금)	44,494	44,494	49,761	5,267	11.8

※ 교육부 소관예산은 교육분야 예산과 사회복지분야 예산으로 구성

□ 2020년 교육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.

① 누리과정, 고교무상교육, 교육급여 등 공교육 투자 확대

○ (지방교육재정교부금)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및 교육세 세수 추계에 따라 '19년 본예산 55조 2,488억원 대비 2,479억원(0.4%) 증액된 55조 4,96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.

○ (고등학교 무상교육) 2020년 고2·고3학생(약 88만명)을 대상으로 가정환경·지역·계층과 관계없이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6,594억원을 편성하였다.

※ 고교무상교육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고교 교육비부담 경감 → 가계 가처분소득 월 13만원이 증대되는 효과('19년 최저임금 기준 월 16시간 근로소득 적용)

- (교육급여) 아울러 기초생활수급가구 초·중·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 지원금을 확대*하여, 저소득층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더욱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* 교육급여(부교재비·학용품비) 지원단가 : (초)203,000원 → 206,000원, (중)290,000원 → 295,000원, (고)290,000원 → 422,200원

○ (유아교육비·보육료지원) 영·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정('20.3월부터 「2019 개정 누리과정」 적용 예정)을 제공하기 위해 3조 7,846억원을 편성하였다.

-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 연장을 추진하도록 하고, 유치원 누리과정(1조 7,518억원, 교육세)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(1조 9,472억원, 국고),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(856억원, 국고)를 편성하였다.

<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 내역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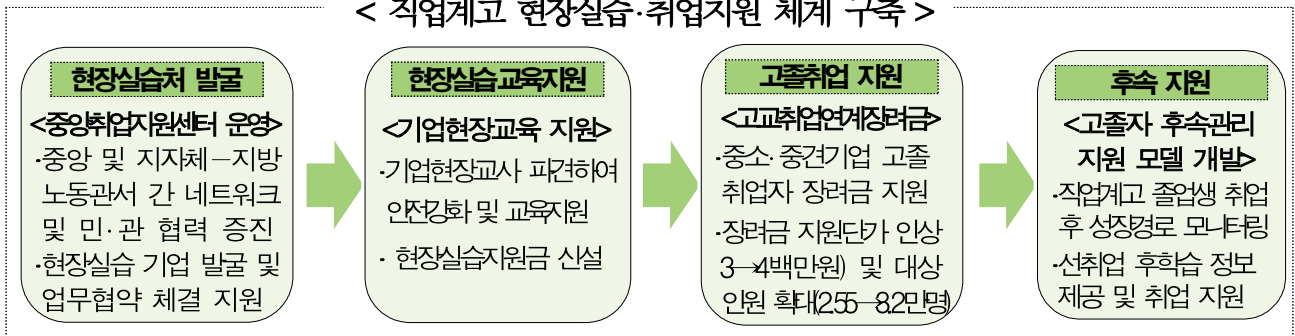
-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: ('19.) 3조 8,153 → ('20.안) 3조 7,846억원(△307억원)
 - 유아교육비 지원(유치원) : ('19.) 1조 7,628 → ('20.안) 1조 7,518억원(△110억원)
 - 보육료 지원(어린이집) : ('19.) 1조 9,812 → ('20.안) 1조 9,472억원(△340억원)
 - 어린이집 교사처우개선 : ('19.) 713 → ('20.안) 856 (143억원)
- ※ 만3~5세 지원 대상아 수 감소 : ('19.) 122.7만명 → ('20.안) 119.9만명(△2.8만명)

② 직업계고 활력 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

- (직업계고 지원)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“현장실습처 발굴 → 현장실습 지원 → 취업 지원 및 장려금 지원 → 후속 지원”으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한다.

※ 중앙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(18억원), 기업현장교육지원(205억원),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(1,107억원),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개발(21억원) 등 총 4개 사업에 1,351억원 지원 ('19년 780억원 대비 571억원 증액)

< 직업계고 현장실습·취업지원 체계 구축 >



- 특히, '20년 정부안에서 신설된 <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>은 국민참여예산으로, 중앙부처 차원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취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❖ 국민참여예산 제안 내용 : “마이스터고, 특성화고와 실업계생들을 위한 적극적인 취업 정책이 필요합니다. 학교는 전문적인 교육으로 학생인재를 길러내고 실력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인재들을 보낼 수 있게 전문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학교에서는 능력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만 집중할 수 있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.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인재를 보충하고 대학교육을 받지 않아도 꼭 대학을 안다녀도 얼마든지 미래가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. 학력중심이 아닌 능력위주의 사회와 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”

- (전문기술인재장학금) 또한, 전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'20년부터 「전문기술인재장학금(우수장학금)」이 신설된다.

- 총 71억원 규모의 장학금 신설로 약 1,000명의 전문대학 우수 재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③ 미래사회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

○ (대학혁신지원사업) 대학이 미래사회·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 역량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.

※ 대학혁신지원사업 : ('19.) 5,688 → ('20.안) 8,035억원 (+2,347억원, 41.3% 증가)

- 먼저, ① 자율협약형 대학(131개교)의 혁신지원비를 교당 평균 40.84억원 → 49.92억원으로 22.2% 인상하고, ② 역량강화형 대학(12개교)의 혁신지원비를 교당 평균 24.67억원 → 30.20억원으로 22.4% 인상할 계획이다.

- 아울러 「대학혁신지원방안('19.8.6.)」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, 지자체·지역대학이 공동의 노력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자율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③ 지역혁신형 대학(시범 3개 지역) 유형을 신설(1,080억원)하였다.

※ 지역혁신형 : 중앙부처가 결정하고 지역대학이 이를 수행하는 하향식(Top-down) 방식이 아닌 역량있는 대학이 지역혁신의 핵심주체로서 지역 특성에 맞는 대학혁신 등 지역발전 아젠다를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 상향식(Bottom-up) 방식으로 추진



○ (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) 전문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평생직업교육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.

※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: ('19.) 2,908 → ('20.안) 3,908억원 (+1,000억원, 34.4% 증가)

- 이에 따라 ① 자율협약형 대학(87개교)의 혁신지원비는 교당 평균 29.99억원 → 39.78억원으로 32.6% 인상하고, ② 역량강화형 대학(10개교)의 혁신지원비는 교당 평균 13.00억원 → 17.24억원으로 32.6% 인상하며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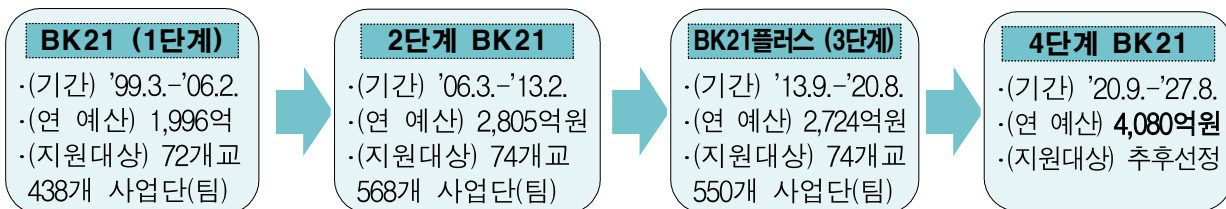
- 지역 학습자들에게 맞춤형 후학습과정을 제공하는 ③ 후진학선도형 대학을 기존 15개교→25개교로 10개교 확대 선정할 계획이다.

- (국립대학육성사업) 국립대학은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서 고등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, 기초·보호학문 육성 및 지역별 강점분야 연구·교육 역량 강화, 지역인재 양성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('20.안, 1,500억원).
- (산학연협력고도화) 대학 내 산학연협력 문화를 조성하여 대학이 혁신 성장을 이끄는 인재양성 및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학연협력 고도화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(2,925→3,689억원, +764억원).
 - 특히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선도대학을 확대하는 등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고
 - ※ 산학연계 교육과정 확대(계획) : ('18.) 2,234개 과정 → ('20.안) 2,500개 과정
 - 아울러, 대학이 보유한 다양한 창의적 자산의 산업계 이전·사업화를 촉진하고, 대학의 기술이전·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지원한다.
 - ※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 : ('19.) 18개교 → ('20.안) 24개교

④ 혁신성장을 이끄는 미래 핵심인재 양성 및 학문 후속세대 육성

- (BK21 플러스 사업)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두뇌한국(BK21) 사업의 4단계 사업 출범('20.9월)을 앞두고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였다(3,839억원*, '20년).
 - * BK21 플러스사업(~'20.8.) 잔여사업비 및 BK21 후속사업('20.9.~), 글로벌박사양성사업 포함 수치
 - 4단계 사업에서는 인력양성 규모를 연간 1.7만명에서 1.9만명으로 2,000명 확대하고, 석·박사생이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할 예정이다(석사 月 60 → 70만원, 박사 月 100→130만원).
 - 또한, 대학원 본부 중심으로 대학원 교육·연구 제도를 혁신하여 연구 중심대학 체제로 전환하고, 학문 분야 간 융·복합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학원 혁신지원비를 신설(연간 529억원)한다.
 - 이번 정부안 기준으로, BK21사업의 연간 사업비는 당초 2,720억원 수준(3단계)에서 4,080억원(4단계)으로, 1.5배(+1,360억원) 정도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.

< BK21 (BrainKorea 21) 사업 개요 >



※ 지원대상은 최초 선정 시 기준

- (학술·연구지원 사업)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, 학문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학술·연구지원 사업을 확대한다.

※ ('19.) 8,464억원 → ('20.안) 8,608억원 (+144억원)

- (인문사회기초연구) '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연구지원' 사업 등 인문사회분야 박사급 연구자들이 단절 없이 연구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안전망 구축을 강화한다.

※ 인문사회 기초연구 : ('19.) 1,617 → ('20.안) 1,851억원 (+234억원)

- (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) 박사후연구자 연구지원(817→1,194개 과제), 대학중점연구소 지원(90→114과제), 창의·도전 및 보호연구지원(1,627→2,327개 과제) 등 대학의 이공학 학술연구지원을 확대한다.

※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사업 : ('19.) 2,177 → ('20.안) 3,374억원(+1,197억원)

- (학술연구 인프라 지원) 대학의 학술DB 라이선스 구독지원(28종→38종) 등 학술자원 공동활용 예산을 증액하고, 대학 연구윤리 지원센터 등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·컨설팅을 확대한다.

※ (학술자원공동관리체계구축사업) 90→115억원, (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) 10→12억원

- (한국학 진흥) 국내·외에 산재한 한국학 관련 DB를 통합한 「(가칭) 한국학자료 통합센터」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(ISP)를 추진하고, 해외 주요국가의 한국학 연구소를 공공외교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.

- (대학 강사 처우개선) 대학 강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학 강사 방학 중 임금(2개 학기분) 및 퇴직금을 지원한다.

※ 국립대학시간강사 처우개선비(+134억원), 사립대학시간강사 처우개선비(+393억원)

- (대학평생교육원 강좌 지원) 또한, 강사법 시행('19.8.)으로 대학 내 강의 기회를 얻지 못한 강사 및 신진연구자 등에게 대학 평생교육원에서의 강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, 대학의 평생교육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.

※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지원(신규) : 49억원(순증, 약 20개교 지원)

⑤ 청년 지원 및 희망사다리 구축

- (맞춤형국가장학금) 내년에도 약 4조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학생·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.
 - ※ 맞춤형국가장학금 지원사업 : ('19.) 3조 9,986억원 → ('20.안) 4조 18억원(+32억원)
 - 교내·외 근로장학금 지원단가를 인상*하고, 인문100년 장학금(130→195억원) 및 예술체육비전 장학금(22→49억원)을 확대할 예정이다.
 - ※ 교내근로 시간당 8,350→9,000원, 교외근로 시간당 10,500→11,150원
- (학자금대출 지원)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(2.2→2.0%)하여 대학생에 대한 금리 인하 지원을 확대한다.
- (행복기숙사지원사업) 대학생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기숙사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·연합기숙사 건립사업을 지속 추진한다('20년 7개소 신축예정).
 - 이와 함께 기숙사형 청년주택사업(124억원)을 신설하여, 기 건립된 주거시설을 활용한 소규모 분산형태의 기숙사 20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.
- (대학 진로탐색학점제) 대학생의 진로탐색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지원사업을 신설하였다(총 4억원, 10개교 지원).
 - 대학 진로탐색학점제는 학기 중 대학생이 국제화, 발명·취업·창업, 연구, 사회봉사 등 진로활동을 스스로 설계·수행하고, 학교는 이를 평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로, 청년들의 졸업 후 진로고민에 대응하여 대학 진로교육의 우수모델을 마련하고 확산하는 데 의의가 있다.

❖ <2018 대학진로취업지원 현황조사, 교육부>

- 대학 생활 중 고민(%) : 졸업 후 진로(57.9), 학업(24.5), 경제적 어려움(9.4) 등
- 진로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한 학생 요구(%) : 전공분야 진로·직업 탐색과목 개설 (42.7), 현장실습 및 인턴 프로그램 (36.1) 등

⑥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미래교육을 위한 공간혁신

- (안전한 교육환경 조성) 미세먼지, 지진, 석면, 드라이비트로 인한 화재위험 등 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비를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.
 - (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) 공기청정기 운영(5억원), 안전보강(20억원) 및 드라이비트 제거(82억원) 비용을 신규 편성하고, 석면제거 예산을 확대(9→11억원)한다.
 - (국립대학 시설확충) 국립대학 노후시설 보강을 위해 전년 대비 시설 보수비를 196억원 증액(946→1,142억원)하고, 석면제거(330억원)·내진보강(1,000억원) 뿐만 아니라 '20년부터 외벽(치장벽돌) 보강(304억) 및 화재 안전(드라이비트 제거) 예방 예산(110억)을 신규 편성할 계획이다.
 - (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) 실험·실습 역량강화 및 안전 확보를 위해
 - ① 실험실습기자재 및 고가·첨단기자재 확충 예산을 315억원 증액하고(485→800억원), ② 위험물 취급·저장소 설치 및 고위험실험실 분리, 안전장비 확충 등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조성예산을 367억원 증액(50→417억원)하였다.
 - (미래교육 공간혁신) 학교공간 혁신을 통해 미래교육에 적합한 교육환경 모델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.
 - (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) 다양한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이 가능한 학생중심의 미래형 학교공간 혁신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(21억원).
 - (소프트웨어 인재양성기반 구축) 창의적 사고와 협동·소통역량을 기를 수 있는 SW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 SW교육 공간혁신 모델학교(6개교)를 운영한다.
 - ※ SW교육 공간혁신 모델학교 : 전통적인 강의식 학교공간에서 벗어나 창의적 사고, 협력과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공간을 유연하게 구성
 - (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) 학생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구현할 수 있는 학교 내 융합형 공간 조성을 위해, 국립부설학교 무한상상실 구축·운영사업*을 확대한다.
 - * ('19.) 7개교(국립중) 무한상상실 신규 구축 → ('20.안) 16개교(국립초) 신규 구축
- ※ (참고) 공·사립학교 무한상상실 구축사업은 특교로 추진 : ('17.) 49 → ('18.) 79 → ('19.) 129개교

⑦ 평생 미래교육콘텐츠 개발 및 취약계층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

- (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개발 등) 성인학습자의 4차 산업혁명 분야 직무능력함양을 위해 양질의 온라인 미래교육콘텐츠를 개발한다.

※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 콘텐츠개발 및 활용 활성화사업 : ('19) 114 → ('20안) 135 (+21억원, +18.4%)

- AI 강좌 등 다양한 분야의 케이무크(K-MOOC)* 콘텐츠를 140개 신규 개발하고,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분야의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협업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매치업(Match業) 프로그램을 확대(누적 20→30개 과정)한다.

*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(K-MOOC) : 대학·공공기관 등의 우수강좌를 온라인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, 양방향 학습관리를 지원하여 고등교육 접근성 제고

- (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) 일반인에 비해 열악한 장애인의 평생학습여건 개선을 위해 국립특수교육원 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예산을 '19년 대비 증액(35→46억원, +11억원)한다.

- 특히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국민제안에 따라, '장애인평생학습 도시사업'을 신설(15억원)하여,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※ ('20안) 장애인평생학습도시 5개 시·도 대상 시범운영 : 5개 시·도 x 3억원 = 15억원

❖ 국민참여예산 제안 내용 : “20세 이상 발달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이 누릴 수 있는 취업 대학이나 평생교육 관련 등을 못 누리고 계십니다. 그러므로 관련 센터들이 더 많이 생겨나면 좋을 것입니다. 시설들의 확충되고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여 운영이 되도록 진행되면 수월할 것입니다.”

- (평생교육바우처 지원)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의 수혜자 수를 '19년 5,000명 → 8,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.

❖ 2018년 평생교육바우처지원사업 수혜수기 : “희귀성 난치병인 율슨 병을 앓고 있는 나는,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마쳤다. (중략) 그러다 알게 된 평생교육 바우처, 내게는 신선한 자극이었다. 사회복지사 과정과 최소전문대학졸업학력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를 활용해 학습하고 있다..” (50대 남성, 전00)

⑧ 해외 한국어 보급 및 국제교육교류 확대, 한일 역사갈등 대응

- (한국어능력시험 개선) '19년부터 국민참여예산으로 신설된 한국어능력시험 개선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말하기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.

❖ 국민참여예산 제안 내용('18.) : 그 간 한류 확산 및 국가위상 제고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인원이 급증하고 있으나, 세계적인 언어 평가와 달리 말하기 시험이 부재한 상황으로, 말하기 평가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의사소통 중심의 평가로서 시험의 완성도 제고 필요

- 한국어능력시험 말하기 평가는 '20년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을 시작으로 모의평가를 거쳐 2022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※ 한국어능력시험 개선사업 : ('19.) 2 → ('20.안) 28억원 (+26억원)

- (국제교육교류 확대) 해외한국어 보급 및 우수 한국유학생 확보 등으로 국제교육교류를 확대하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한다.

- (재외동포교육운영지원) 먼저, 한국교육원 신설(1개교), 해외 초·중등학교의 한국어 채택 지원(40→58억원), 해외 현지학교 한국어 교원파견 확대(65→132명) 등 한국어 보급 및 교육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.

※ 재외동포교육운영지원사업 : ('19.) 715 → ('20.안) 786억원 (+71억원)

- (국제교육교류협력활성화) 아울러,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(GKS, Global Korea Scholarship) 교류 인원(870→1,300명) 및 해외 한국어반 우수 고교생 초청연수 인원(60→120명)을 확대하는 등 학생 교류도 활성화한다.

※ 국제교육교류협력활성화사업 : ('19.) 590 → ('20.안) 674억원 (+84억원)

- (한일 역사 갈등 대응) 일제 식민지배·강제동원 관련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연구총서를 발간하는 등 일제 식민지배의 부당성과 피해 구조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.

* 동북아역사재단 일제침탈사연구총서 및 자료집편찬사업 20억원 편성('20.)



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예산담당관실 김나현 사무관, 김병철 주무관(☎ 044-203-6034, 604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